

21세기 과학형 국가관리자

장 재 열

중앙일보 정보과학부 차장

21 세기에는 우리의 과학 기술이 선진국 대열에
 낄 수 있을까.
 한마디로 올바른 국가 관리자가 정책을 이
 끈다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게 많은 이들의 견
 해다.

그동안 대한민국에 지도자는 많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국가 관리자는 부족했다.

최근 과학기술계에 올바른 관리자·지도자를 아쉬워
 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이대로는 안된다는 자
 성과 변화를 바라는 모습도 보인다.

특히 금년은 대선이 있는 데다 과학기술계 자체적으
 로 체제의 변화를 바라는 기운이 감돌아, 98년에는 정
 부 조직·연구 기관 등에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전망이
 다.

우선 많은 대선 주자들이 21세기에 대비하는 명목으
 로 정부 기관의 통폐합을 거론하고 있어 변화의 바람을
 피하기 어렵다.

이 경우 1순위에 오를 부처가 과학기술처가 될 것이
 라는 말도 있다. 혹자는 일본의 과학기술청이 통폐합되
 는 것과 이를 연관시키기도 한다.

그동안 대선 캠프들에서 흘러나온 과학 행정 개편안
 을 보자.

• 1안 : 과학기술처와 교육부를 통합해 연구 인력의
 양성과 기초 연구를 육성한다.

• 2안 : 과학기술처, 교육부, 정보통신부를 모두 통합
 해 연구 개발 관리를 최대한 집중시키고 공무원 수의 감
 축을 도모한다.

• 3안 : 과학기술처 장관을 부총리 급으로 격상시켜
 국가의 연구 개발을 통괄 조정토록 한다.

• 4안 : 산업기술부를 두어 연구 지원 기능과 과학 및
 산업 기술 정책을 통괄하도록 한다. 청와대에는 과학기
 술 수석비서관을 발령한다.

이같은 다양한 구상들이 떠돌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개편이 있을 조짐이다.

이런 정부 조직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출연 연구 기관
 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도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다.

이에 관련자들은 이미 정부 조직을 어떤 식으로 개편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연구 작업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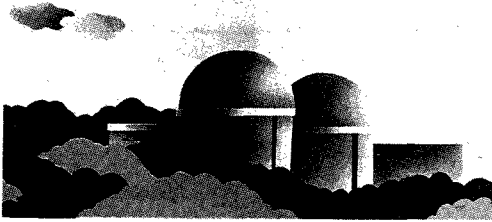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 갖가지 구상이 수면위로 떠오
 를 것 같다.

국가 관리자가 확실한 중심을 잡아주지 않으면 80년
 대 초와 같은 연구 분위기의 혼돈이 재현될 우려가 높
 다.

그럼 어떤 형의 국가 관리자가 이를 마무리지어야 할
 까.

지난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무총장 선정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시사점을 얻는다.

사실 정근모 박사의 사무총장 도전은 어떻게 보면 개



최근 과학기술계에 올바른 관리자·지도자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높다. 21세기에는 과학과 기술의 바탕 위에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인식을 가진 관리자가 절대 필요하다. 그 관리자는 과학 기술에 한한 지도자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 단시간에 과학 기술이 도약하려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인적인 의욕 외에 우리 과학기술인이 세계 무대에 나선다는 상징적인 뜻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다.

외무부의 관점은, 국제 기구의 자리는 국가간의 뒷거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이미 양해가 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다른 자리를 차지하려는 데 과학자가 괜히 나서서 물을 흐려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면 다른 자리는 양보하고 과학자가 갈 수 있게 IAEA 사무총장 선정을 밀어줄 수는 없었을까.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결과에 관계없이 모양이 훨씬 보기 좋았을 것이다.

결국 힘없는 과학기술계는 국가 이익이라는 명분 앞에 좌절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말았다. 여기에 바로 국가 관리자의 철학과 멀리 보는 안목이 아쉬운 것이다.

과거 과학 기술을 통해 국가의 위상을 높인 지도자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 세종대왕 : 과학 기술에 대한 집념, 혁신적인 인재 동용, 기술 향상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 기술 자립을 위한 자주적 노력으로 세계 수준의 과학 입국을 실현. 세종은 과학 기술을 국가 경영의 핵심 지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박성래 저, 세종시대의 과학기술 그 현대적 의미)

• 드골 : 드골은 우선 프랑스의 자존심을 되찾는 비전으로 과학 기술의 육성을 내세웠다. 그는 원자력·해

양·항공 우주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미국에 버금가는 기술 입국을 실현했다.

• 이광요 : 이광요 싱가포르 전 수상은 70년대 중반 이미 반도체·레이저·초정밀 공작 기계 등 첨단 기술 개발에 주력했다. 그는 개발 계획에 손수 참여하고 이를 추진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과학 기술 육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점이다.

특히 과학기술인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을 격려하는데 인색하지 않았다. 이들은 형식적인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과학 기술 발전에 온 힘을 기울였다.

21세기에는 이런 과학과 기술의 바탕 위에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겠다는 인식을 가진 관리자가 절대 필요하다. 그 관리자는 과학 기술에 한한 지도자가 되어도 좋을 것 같다. 단시간에 과학 기술이 도약하려면 지도자의 리더십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면 관리는 물론 지도력도 중요하다.

98년은 21세기 과학형 국가 관리자를 맞아 새로 시작하는 때다. 많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시간은 많지 않다.

올해는 세종대왕 탄신 6백주년인 해. 이제는 우리에게 세종같은 명 관리자·지도자를 만날 운이 찾아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 ❀